

영추 · 경맥편 수태음폐경 유주의 한글번역에 대한 고찰

정혜진 · 임사비나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A Study on Korean Translation of the Pathway of Lung Meridian in Miraculous Pivot · Meridian Vessel

Hyejin Jung, Sabina Lim

Department of Meridian and Acupoint, Kyung Hee University

Objectives : It aims to establish a basic rule in Korean translation of the pathway of lung meridian in Miraculous Pivot · Meridian vessel. Based on the rule, We tried to make standard translation of the pathway of lung meridian in Miraculous Pivot · Meridian vessel. **Methods :** Books needed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through searching Kyunghee University Library(<http://khis.khu.ac.kr>). Keywords included “Miraculous Pivot of Huangdi’s Internal Classic”. We also include the book which is generally used as a textbook in Colleges of Korean Medicine. **Results :** In five Chinese books, the word-spacing was used differently in four phrases. Six Korean-translated books had the different translation in three phrases. We suggested a standard Korean translation of the pathway of lung meridian in Miraculous Pivot · Meridian vessel. **Conclusions :** This result of the study would be expected to not only be published in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but be studied more about Korean translation by experts in this field.

Key words : lung meridian, Korean translation, Miraculous Pivot, Meridian vessel

서론

한의학은 고대에서부터 전해져 온 중국과 한국의 의학서적들을 연구하여 이를 학문의 기반으로 삼는다. 대표적인 서적이 『황제내경』으로, 역대 의학자들은 『소문』과 『영추』로 구성된 『황제내경』을 십이경맥의 기원으로 인정해왔다¹⁾. 이 중 『영추』는 침구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맥명칭과 유주가 자세히 기술된 『영추 · 경맥』편은 지금의 경락체계가 제시된 고전으로 십이경락을 학습하는 지침이 되고 있다.

『영추 · 경맥』편을 읽기 위해서는 고대중국어인 한문을 읽고 이

해할 수 있거나, 한글번역을 통해서 학습해야 하는데 한글로 번역된 단행본들을 살펴보면, 번역자마다 번역을 위해 참고한 문헌이나 번역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혼란이 야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한문으로 된 원문의 띄어쓰기 역시 저자나 출판사에 따라 달라서 일관성이 없는 실정이다. 원문을 띄어 쓰는 방식이나 번역의 차이는 경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는 것도 있으나, 학습자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도 있어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할 수 있는 표준안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출간된 자료를 토대로 조사분석하

Received August 12, 2016, Revised September 6, 2016, Accepted September 7, 2016

Corresponding author: **Sabina Lim**

Department of Meridian and Acupuncture Point,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Hoeki-dong, Dongdaemun-gu, Seoul 02447, Korea

Tel: +82-2-961-0324, Fax: +82-2-961-7831, E-mail: lims@khu.ac.kr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d-Career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EST](No.: NRF-2014R1A2A1A11052795).

©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여 『영추·경맥』편 유주 한문 원문 띄어쓰기와 한글 번역의 원칙을 정립하고 이 원칙에 입각한 『영추·경맥』편 수태음폐경 유주 한문 원문 띄어쓰기 및 한글 번역 표준안을 도출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조사방법

원문은 『영추·경맥』의 역대 의가들 주석을 연구한 논문²⁾을 토대로 시대별 대표적인 서적을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원문에 띄어쓰기가 되어있지 않은 황제내경 영인본과 침구잡을경을 제외하고 수나라 시기에 양상선이 편집한 『황제내경태소』³⁾와 명나라 때 장개빈이 저술한 『류경』⁴⁾, 청나라에 저술된 황원어의 『황원어의서십일종·영추현해』⁵⁾(이하 『영추현해』, 1960대 중국의 진벽류·정탁인이 편집한 해석본의 일종인 『황제내경영추백화해』⁶⁾(이하 『백화해』)를 원문 비교 및 용어번역에 참고하였다.

한글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 현재 한의과대학에서 경혈학 교재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대학경락경혈학총론’ 1권과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http://khis.khu.ac.kr>)에서 ‘黃帝內經靈樞’로 검색한 총 57권의 단행본 중 『영추·경맥』 원문에 대해 한글번역을 제시한 5권을 조사하였다. 『대학경락경혈학총론』⁷⁾,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⁸⁾, 『(今釋) 黃帝內經 靈樞』⁹⁾, 『(編注譯解) 黃帝內經靈樞』¹⁰⁾, 『黃帝內經 靈樞』¹¹⁾, 『뜻으로 풀 황제내경영추』¹²⁾ 총 6권을 중심으로 『영추·경맥』의 수태음폐경 유주 한글번역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알아보았다.

2. 분석방법

조사방법을 통해 찾은 시대별 대표서적 4종에서 『영추·경맥』편 수태음폐경 부분의 원문 띄어쓰기를 비교하고, 6권의 단행본에서 제시한 한글번역을 비교분석하였다.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을 대표로 정리하고,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표준안으로 제안하거나, 학습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경맥유주에 대한 번역 시 사용한 해부학용어는 해부학용어집 6판(2014 대한해부학회)을 참고하였다.

결 과

1. 『영추·경맥』의 수태음폐경 원문 띄어쓰기 비교분석

4종의 서적에서 『영추·경맥』에서 수태음폐경 유주 부분을 비교분석한 결과, ‘上膈屬肺’를 『황제내경태소』, 『류경』, 『백화해』에서는 ‘上膈屬肺’로, 『영추현해』에서는 ‘上膈 屬肺’로 나타났다. ‘下肘中循臂內上骨下廉入寸口’를 『황제내경태소』, 『영추현해』에서는 ‘下肘中 循臂內 上骨下廉 入寸口’로, 『류경』에서는 ‘下肘中循臂內 上骨下廉入寸口’로 『백화해』에서는 ‘下肘中 循臂內上骨下廉入寸口’로 띄어쓰기를 하였다. ‘上魚循魚際’는 『황제내경태소』, 『영추현해』, 『백화해』에서는 ‘上魚 循魚際’로, 『류경』에서는 ‘上魚循魚際’로 표기하였다. ‘其支者從腕後直出次指內廉出其端’을 『황제내경태소』, 『백화해』에서 ‘其支者 從腕後直出次指內廉出其端’로, 『류경』에서 ‘其支者從腕後直出次指內廉出其端’, 『영추현해』에서 ‘其支者 從腕後直出次指內廉 出其端’로 띄어썼다(Table 1). 독자의 편의를 위해 4종의 서적에 있는 수태음폐경 한문 원문을 아래에 수록하였다.

1)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제1판. 서울: 대성문화사. 1986 ; 71

【원문】 肺手太陰之脈，起於中焦，下絡大腸，還循胃口，上膈屬肺，從肺系橫出腋下，下循肱內，行少陰心主之前，下肘中，循臂內，上骨下廉，入寸口，上魚，循魚際，出大指之端。其支者，從腕後直出次指內廉出其端。

2) 張介賓. 類經. 제1판. 서울: 대성문화사. 1982 ; 150-1

【원문】 肺手太陰之脈，起於中焦，下絡大腸，還循胃口，上膈屬肺，從肺系橫出腋下，下循肱內，行少陰心主之前，下肘中循臂內，上

Table 1. Comparison of Word Spacing in Chinese Books

Author	Comparison word spacing in Chinese books	Book
楊上善	上膈屬肺， 下肘中∨循臂內∨上骨下廉∨入寸口， 上魚∨循魚際， 其支者∨從腕後直出次指內廉出其端	1
張介賓	上膈屬肺， 下肘中循臂內∨上骨下廉入寸口， 上魚循魚際， 其支者從腕後直出次指內廉出其端	2
黃元御	上膈∨屬肺， 下肘中∨循臂內∨上骨下廉∨入寸口， 上魚∨循魚際， 其支者∨從腕後直出次指內廉∨出其端	3
陳璧琉， 鄭卓人	上膈屬肺， 下肘中∨循臂內上骨下廉∨入寸口， 上魚∨循魚際， 其支者∨從腕後直出次指內廉出其端	4

*띄어쓰기가 된 부분은 ∨로 표시하였다.

骨下廉入寸口, 上魚循魚際, 出大指之端。其支者從腕後直出次指內廉出其端。

3)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 제1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 469-70

【원문】 肺手太陰之脈, 起于中焦, 下絡大腸, 還循胃口, 上膈, 屬肺, 從肺系橫出腋下, 下循臑內, 行少陰心主之前, 下肘中, 循臂內, 上骨下廉, 入寸口, 上魚, 循魚際, 出大指之端。其支者, 從腕後直出次指內廉, 出其端。

4) 陳璧疏, 鄭卓人. 黃帝內經靈樞白話解. 제3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 105-6

【원문】 肺手太陰之脈, 起于中焦, 下絡大腸, 還循胃口, 上膈屬肺, 從肺系橫出腋下, 下循臑內, 行少陰心主之前, 下肘中, 循臂內上骨下廉, 入寸口, 上魚, 循魚際, 出大指之端; 其支者, 從腕後直出次指內廉出其端。

2. 『영추·경맥』의 수태음폐경 한글 번역 비교분석

『영추·경맥』의 수태음폐경 한글번역본의 문장구조를 비교분석한 결과, 『대학경락경혈학총론』,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今釋) 黃帝內經 靈樞』, 『(編注講解) 黃帝內經靈樞』, 『黃帝內經 靈樞』, 『뜻으로 풀 황제내경영추』에서 ‘下絡大腸을 각각 ‘아래의 대장에 락하였다가’, ‘아래로 대장에 락하고’, ‘하부의 대장에 락하였다가’, ‘하부의 대장에 연락하였다가’, ‘아래로 대장에 연락되고’, ‘아래로 내려가 대장에 닿고’로 기술하였다. ‘從肺系橫出腋下’를 ‘폐계에서 옆으로 나와 겨드랑 밑에서’, ‘폐계를 좇아서 액하로 횡출하여’, ‘폐계에서 옆으로 나와 겨드랑 밑에서’, ‘폐계로부터 옆으로 겨드랑이 밑으로 나와’, ‘폐계를 좇아 <상승하다가> 액하부에서 횡으로 나와서’, ‘폐계로부터 겨드랑이 아래로 옆으로 나와’로 번역하였다. 또한 ‘循臂內上骨下廉’을 ‘팔 안쪽 전완부로 내려와’, ‘비내(측)상골의 하림을 순하여’, ‘팔 안쪽 상골로 내려와’, ‘아래 팔 안쪽 상골(요골)의 아래쪽을 따라’, ‘요골의 하림을 따라’, ‘팔의 안쪽과 손바닥 뒤쪽 요골 아래를 따라’로 표현하는 차이가 있었으며 이를 표로 정리하였다(Table 2). 독자의 편의를 위해 6종의 서적에 있는 수태음 폐경 한글 번역 원문을 모두 수록하였다.

1) 전국한외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경혈학 교재편찬위원회. 대학경락경혈학총론. 제 6판. 대전: 종려나무. 2012 ; 91

【번역】 手太陰肺經은 中焦에서 시작하여 아래의 大腸에絡하였다가 胃口를 돌아 횡격막을 꿰뚫고 肺에 속하며 다시 肺系에서 옆으로 나와 겨드랑 밑에서 팔 안쪽을 따라 내려가서 手少陰心經과 手厥陰心包經의 앞을 지나, 팔꿈치 중앙으로 내려온 다음, 팔(臂) 안쪽 前腕部로 내려와 寸口로 들어가 魚際部에 이르고 魚際를 순행

하여 엄지손가락 끝으로 나온다. 그 支脈은 腕骨 뒤쪽에서 검지손가락 안쪽에서 끝으로 나온다.

2) 홍원식.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제1판.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1994 ; 118-9

【번역】 肺手太陰의 脈은 中焦에서 起하여 아래로 大腸에絡하고 還하여 胃口를 循하여 膈을 上하여 肺에屬하고 肺系를 좇아서 腋下로 橫出하여, 아래로 臑(上臂膊에서 肘까지)의 안쪽을 따라(循) (手)少陰經과 心主(手厥陰心包)의 前으로 行하여, 肘 가운데로 下하고, 臂內(側)上骨의 下廉을 循하여 寸口로 入하고 魚(手大指本節後 掌側肌肉隆起處)로 上하여 魚際를 循하여 大指의 端으로 出하며, 그 支는 腕의 뒤로 次指의 內廉으로 直出하여 그 端으로 出합니다.

3) 배병철. (今釋) 黃帝內經 靈樞. 제1판. 서울: 정보사 부설 전통의학연구소. 1995 ; 129-30

【번역】 手太陰肺經은 中焦에서 시작하여 하부의 大腸에絡하였다가 胃口를 돌아 橫膈膜을 꿰뚫고 肺에屬하며 다시 肺系에서 옆으로 나와 겨드랑(腋) 밑에서 팔 안쪽을 따라 내려가서 手少陰心經과 手厥陰心包經의 앞을 지나, 팔꿈치 중앙으로 내려온 다음, 팔(臂) 안쪽 上骨로 내려와 寸口로 들어가 魚際部에 이르고 魚際穴를 순행하여 엄지손가락(大指) 끝으로 나옵니다. 그 支脈은 腕骨 뒤쪽(列缺穴)에서 검지손가락(食指) 안쪽에서 끝으로 나옵니다.

Table 2. Comparison of Korean Translation in Books

Original chinese text	Comparison of Korean translation	Book
下絡大腸	아래의 대장에 락하였다가	1
	아래로 대장에 락하고	2
	하부의 대장에 락하였다가	3
	하부의 대장에 연락하였다가	4
	아래로 대장에 연락되고	5
	아래로 내려가 대장에 닿고	6
從肺系橫出腋下	폐계에서 옆으로 나와 겨드랑 밑에서	1
	폐계를 좇아서 액하로 횡출하여	2
	폐계에서 옆으로 나와 겨드랑 밑에서	3
	폐계로부터 옆으로 겨드랑이 밑으로 나와	4
	폐계를 좇아 <상승하다가> 액하부에서 횡으로 나와서	5
	폐계로부터 겨드랑이 아래로 옆으로 나와	6
循臂內上骨下廉	팔 안쪽 전완부로 내려와	1
	비내(측)상골의 하림을 순하여	2
	팔 안쪽 상골로 내려와	3
	아래 팔 안쪽 상골(요골)의 아래쪽을 따라	4
	요골의 하림을 따라	5
	팔의 안쪽과 손바닥 뒤쪽 요골 아래를 따라	6

4) 이경우. (編注譯解) 黃帝內經靈樞 1. 제1판. 서울 : 여강출판사. 2000 ; 388-9

【번역】 手太陰肺經脈은 中焦에서 시작하여 아래로 大腸에 연락하였다가 돌아와 胃口을 돌며 膈膜을 올라가 肺에 歸屬하며, 肺系로부터 옆으로 겨드랑이 밑으로 나와 위팔 內側을 따라 내려와 手少陰經과 手心主脈陰經의 앞을 행하며, 팔꿈치 중(尺澤)으로 내려와 아래 팔 안쪽 上骨(橈骨)의 아래쪽을 따라 寸口로 들어가 魚部(엄지손가락 本節 뒤에 손바닥쪽으로 肌肉이 물고기 배처럼 불룩 솟아 오른 부위)에 이르고 魚際를 순행하여 엄지손가락 끝으로 나옵니다. 그 支脈은 팔목 뒤에서 곧추 둘째손가락 안쪽을 따라 행하여 그 끝으로 나옵니다.

5) 김달호. 黃帝內經 靈樞. 제1판. 서울 : 의성당. 2002 ; 293

【번역】 肺經인 手太陰의 경맥은 中焦에서 시작하여 아래로 大腸에 연락되고, 되돌아와 胃口部를 휘감으면서 횡격막을 상행하여 肺에 이어지며, 肺系를 좇아 <상승하다가> 腋下部에서 橫으로 나와서, 아래로 상박부(臑)의 내측을 따라 手少陰經과 手厥陰心包經의 전방을 순행하고, 肘關節 속으로 하행하다가 요골(臂內上骨, radius)의 下廉을 따라 寸口部로 들어가 魚腹部로 상행하는데, 魚際穴로 순행하여 엄지손가락의 <내측> 끝으로 나온다. 그 가지(別支)는 腕關節 후방에서 食指的 內廉으로 곧바로 나와 그 끝에서 나온다.

6) 김기욱·문재곤. 뜻으로 풀 황제내경영추. 제1판. 서울 : 법인문화사. 2014 ; 87

【번역】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의 맥은 중초(中焦)에서 시작하여 아래로 내려가 대장(大腸)에 닿고, 위구(胃口)를 돌아 위로 횡격막으로 올라가 폐에 속합니다. 폐계(肺系)로부터 겨드랑이 아래로 옆으로 나와 아래로 팔 안쪽을 돌아 수소음심경(手少陰心經)과 수궐음심포경(手厥陰心包經)의 앞으로 가 팔꿈치 가운데로 내려가서 팔의 안쪽과 손바닥 뒤쪽 요골 아래를 따라 촌구(寸口)로 들어가 어복혈(魚腹穴)로 올라가 어제혈(魚際穴)을 따라 엄지손가락 끝으로 나갑니다. 그 갈래는 손목 뒤에서 곧바로 식지 끝의 안쪽으로 나가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과 만납니다.

고찰

1. 각 문헌별 경맥 유주 원문 띄어쓰기 및 한글번역의 문제점 분석

원문 띄어쓰기와 한글번역을 제시할 때 먼저 중국문장의 언어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고대 중국어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고

대 중국어 어순이 주어+술어+목적어(SVO)형이라는 견해와 주어+목적어+술어(SOV)형이라는 견해가 상충하여 이에 대한 토론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¹³⁾ 중국어의 종류가 방대하고 오랜 시대를 거쳐 문법은 변화되는 것이므로 어떤 견해가 옳다하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고대 중국어는 술어를 뒤쪽에 쓰는 우리나라 문장구조와는 다르고, 술어와 목적어 사이에 띄어쓰기가 없다. 그러나 『영추·경맥』 편의 어순은 SVO의 형태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며 SVO의 형식으로 번역할 때 그 의미가 명료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문 띄어쓰기를 하거나 한글로 번역할 때 술어(여기서 술어는 주어 뒤에서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문장성분으로 목적어, 보어, 부사어 등을 제외한 성분을 의미한다)와 명사구(SVO 구조에서 O는 목적어를 의미하는데 ‘빈어(宾语)’라고도 한다. 목적어에는 명사성 어구, 동사성 어구, 형용사성 어구, 주술구, 수량사 모두 올 수 있다. 『영추·경맥』에서는 주로 명사성 어구가 쓰이므로 명사구라고 하였다)의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진다면 문장을 잘못 번역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문 띄어쓰기에서 ‘循臂內上骨下廉’은 술어인 ‘循’과 명사구인 ‘臂內上骨下廉’의 결합이므로, ‘循臂內, 上骨下廉’이 아닌 ‘循臂內上骨下廉’이 정확한 띄어쓰기가 된다. 한글번역에서 下絡大腸에서 下絡은 술어, 大腸은 명사구이므로 下絡을 ‘내려가 이어진다’ 또는 ‘내려가 닿는다’로 번역한다면 下絡을 술어로써 온전히 번역할 수 있다. 또한 ‘아래의 대장’과 같이 술어부와 명사구가 혼동되어 번역하거나 ‘대장으로 닿고’와 같이 방향을 나타내는 ‘下’의 의미를 생략하지 않으면서 번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추·경맥』편을 번역할 때 우선 술어부와 명사구로 구분하여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번역의 오류를 지양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둘째, 원문 띄어쓰기와 한글번역을 제시할 때 술어 번역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수태음폐경 유주에 쓰인 술어 한자를 살펴보면 출입을 나타내는 出, 入과 흐름을 나타내는 還, 從, 循, 行, 방향을 나타내는 上, 下, 橫과, 경기(經氣)의 분포양상을 나타내는 絡, 屬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글로 번역될 때는 번역서마다 다르게 번역하거나, 같은 용어를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술어부 한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용어를 찾아 일관된 표현으로 학습자의 이해를 돕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還循胃口’는 술어부가 ‘還循’인데 번역이 ‘胃口을 돌아’, ‘還하여 胃口을 循하여’, ‘胃口部를 휘감으면서’와 같이 되어있다. 돌아간다는 뜻의 還과 따라가다는 뜻의 循의 결합인 술어부에서 循의 의미가 생략되고 還만 번역이 되거나, 한자어를 그대로 옮겨 번역에 인용하고 있는데, 대략적인 방향을 짐작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으나 흐르는 모습은 학습자들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원문에 충실한 표현으로 번역

하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해부학적 용어와 방향에 대한 기술을 재정의 하여야 한다. 『소문·음양이합론』에서 “성인이 남쪽을 보고 서 있을 때…소음의 위쪽을 태양이라 하고…태음의 앞쪽을 양명이라 하며…궤음의 바깥쪽을 소양이라 한다”라고 한 내용을 토대로 경맥의 위치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면, 양다리를 붙이고 양팔과 손바닥을 마주하여 붙인 웅크린 발생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서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대 해부학적 자세는 정면을 바라보고 양팔을 몸통 양 옆으로 늘어뜨린 채 손바닥이 앞쪽을 향하는 자세이므로 이에 따른 위치 재정의와 최신 해부학 용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臂內上胛下廉에서 臂는 ‘팔(臂)’, ‘팔’ ‘아래팔’ 등으로, ‘上胛’은 ‘上骨(橈骨)’, ‘요골’, ‘radius’ 등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해부학용어집 6판(2014 대한해부학회)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臂內에서 內(안쪽)는 해부학적 자세에서 앞쪽(anterior)를 뜻하고 上胛下廉에서 下(아래쪽)는 해부학적 자세에서 안쪽(medial)를 뜻하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자를 그대로 번역하기보다는 해부학적 자세를 기반으로 위치를 재정의한다면 한의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수태음폐경 경맥유주 원문 띄어쓰기 및 한글기술 개선방안

『영추·경맥』편 수태음폐경 유주 원문을 SVO의 형식에 근거하여 술어와 명사구로 단위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肺手太陰之脈(주어) 起(술어)+中焦(명사)/下絡(술어)+大腸(명사)/還循(술어)+胃口(명사)/上(술어)+膈(명사)/從(술어)+肺系(명사)/橫出(술어)+腋下(명사구)/下循(술어)+膈內(명사구)/行(술어)+少陰心主之前(명사구)/下(술어)+肘中(명사구)/循(술어)+臂內上骨下廉(명사구)/入(술어)+寸口(명사)/上(술어)+魚(명사)/循(술어)+魚際(명사)/出(술어)+大指之端(명사구)/從(술어)+腕後(명사구)/直出(술어)+次指內廉(명사구)/出(술어)+其端(명사구).”

이를 토대로 의미단위를 구분하여 경맥 유주 원문 띄어쓰기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肺手太陰之脈 起於中焦, 下絡大腸, 還循胃口, 上膈, 屬肺, 從肺系, 橫出腋下, 下循膈內, 行少陰心主之前, 下肘中, 循臂內上骨下廉, 入寸口, 上魚, 循魚際, 出大指之端, 其支者 從腕後, 直出次指內廉, 出其端.”

또한 한글번역에 있어서 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결과에서 제시한 6권의 단행본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起於(于)中焦’에서 起於(于)가 술어부로 조사한 6권의 단행본에서 모두 ‘시작한다’라고 하였다. 『영추·경맥』에서 기술된 십이경맥 유주의 시작을 모두 ‘起於(于)’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시작하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여 기존의 번역을 따랐다. 명사구인 ‘中焦’는 해부학적 용어가 아닌 한의학 용어로 그대로 한글로 옮겨지되 한자표기를 병행하여 ‘중초(中焦)에서 시작하여’로 번역하였다. 『류경』, 『백화해』에서는 중초를 배꼽 위 4寸 위인 中脘穴(중완혈)이라고 하였으나¹⁴⁾ 中脘穴(중완혈)은 중초의 일부일 뿐 같은 개념은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았다.

‘下絡大腸’에서 下絡이 술어부, 大腸이 명사구로 ‘아래의 대장에’ ‘하부의 대장에’로 번역하는 것은 ‘下’를 술어로 보지 않고 대장의 수식으로 번역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下絡을 술어부로 번역한 것을 살펴보면 ‘아래로 연락하다’, ‘아래로 내려가 닿다’로 되어 있는데 下는 내려간다는 표현에 아래로 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내려가다’로, 絡은 ‘연락하다’보다는 ‘닿다’가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보아 ‘대장으로 내려가 닿고’로 번역하였다.

‘還循胃口’에서 還循이 술어부, 胃口이 명사로 기존 번역에서는 ‘胃口을 돌아’, ‘還하여 胃口을 循하여’, ‘돌아와 胃口을 돌며’, ‘되돌아와 胃口部를 휘감으면서’로 되어 있다. 한자는 글자마다 의미를 담고 있는 뜻글자 이므로 ‘胃口을 돌아’와 같이 循의 의미인 ‘따라가다’가 임의로 생략되지 않도록 하였다. 還은 ‘되돌아오다’, ‘돌다’ 두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되는데 대장으로 내려갔다 위쪽으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의미로 보아 ‘되돌아오다’로 번역하였다. 胃口은 위의 들문과 유사한 위치이므로, 한자표기와 해부학용어를 괄호 안에 병기하여 ‘되돌아와 위구(胃口, 들문)를 따라가’로 번역하였다.

‘上膈’에서 上은 방향성만 나타내는 술어이므로 ‘궤뚫고’, ‘올라가’, ‘상행하여’, ‘위로 올라가’ 중에서 ‘궤뚫다’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상행하다’는 한자어이고, ‘위로 올라가’는 올라가라는 표현에 위로 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올라가다’가 가장 적절하다. 膈은 해부학용어 6판에 근거해 ‘횡격막’에서 ‘가로막’으로 바꿔 ‘가로막으로 올라가’로 번역하였다.

‘屬肺’에서 屬이 술어로, ‘속한다’, ‘귀속한다’, ‘이어진다’ 중에 ‘귀속한다’라는 표현이 경락의 기운이 폐를 온전히 감싼다는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폐(肺)에 귀속하며’로 번역하였다.

‘從肺系’에서 명사구인 폐계(肺系)의 의미는 『백화해』에서 기관(氣管)이라고 번역한 것¹⁵⁾을 괄호 안에 명시하였다. 기존 번역에서 ‘폐계로부터’, ‘폐계를 좇아’라는 표현도 맞지만, 술어인 從은 ‘따라가다’로 일관되게 번역하기 위해 ‘폐계(肺系, 기관)를 따라가서’로 번역하였다. 대부분의 기존번역이 ‘從’자를 ‘~로부터’로 번역하고 있는데 술어+명사구 구조로 번역할 경우 ‘從’자를 동사로 ‘따르다, 따라가다’로 번역해도 의미에 오류가 없으므로 일관된 문장구조인 SVO구조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橫出腋下’에서 술어부인 橫出은 橫은 ‘옆으로’ 나온 ‘나온다’의 의미가 있으므로 기존번역서에서는 ‘옆으로 나와 겨드랑 밑에서’, ‘옆으로 겨드랑이 밑으로 나와’, ‘겨드랑이 아래로 옆으로 나와’ 라 하였는데, 의미는 대동소이하나, 술어가 뒤쪽으로 가는 우리말 어순에 맞춰 ‘겨드랑(axilla) 아래로 옆으로 나와’가 적합하다.

‘下循膻內’에서 술어부 ‘下循’에서 下는 ‘내려가다’, 循은 ‘따라가다’의 의미가 있으며 기존번역서에서도 대부분 ‘따라 내려간다’고 번역하였다. 膻는 해부학용어로 ‘위팔(arm) 부위를 나타낸다. 膻內에서 內(내, 안쪽)는 해부학적 자세에서 앞쪽(anterior)를 뜻하므로 ‘위팔 앞쪽을 따라 내려간다’로 번역하였다.

‘行少陰心主之前’에서 少陰은 心手少陰之脈을, 心主는 『영추·경맥』에서 心主手厥陰心包絡之脈을 뜻하며, 前(앞쪽)은 해부학적 자세에서 가쪽(lateral)을 뜻하므로 기존 번역서에서 원문을 직역하여 ‘수소음심경과 수궐음심포경의 앞을 지난다’ 되어있는 것을 ‘수소음심경과 수궐음심포경의 가쪽을 지난다’로 번역하였다.

‘下肘中’는 기존번역서에서 ‘팔꿈치 중앙으로 내려온 다음’, ‘팔꿈치 속으로 하행하다가’, ‘팔꿈치 가운데로 내려가서’로 되어있는데 술어 下는 ‘내려가다’ 肘는 ‘팔꿈치’로 번역하고, 中은 ‘중앙에서’ 보다는 한글인 ‘가운데’가 적절하다고 보고, 공간상의 가운데 보다는 평면에서 거리상 가운데를 의미하므로 ‘속으로’라는 표현을 배제하였다. 따라서 ‘팔꿈치 가운데 쪽으로 내려와’라고 번역하였다.

‘循臂內上骨下廉’에서 술어 循은 ‘따라가다’의 의미이며 기존에 ‘팔(臂) 안쪽 前腕部로 내려와’, ‘팔(臂) 안쪽 上骨로 내려와’, ‘아래 팔 안쪽 上骨(橈骨)의 아래쪽을 따라’, ‘요골(臂內上骨, radius)의 下廉을 따라’ ‘팔의 안쪽과 손바닥 뒤쪽 요골 아래를 따라’로 번역하였다. 臂은 아래팔(forearm), 上骨은 노뼈(radius)로 최신해부학용어로 수정하였다. 臂內에서 內(안쪽)는 해부학적 자세에서 앞쪽(anterior)를 뜻하므로 ‘아래팔 앞쪽’, 上骨下廉에서 下(아래쪽)는 해부학적 자세에서 안쪽(medial)를 뜻하므로 ‘노뼈 안쪽’으로, 廉은 ‘모서리’를 의미하므로 ‘아래팔 앞쪽 노뼈 안쪽 모서리를 따라’로 번역하였다.

‘入寸口’에서 술어인 入은 ‘들어가다’의 뜻이고, 기존 단행본에서 모두 ‘寸口로 들어가’로 번역하였다. 寸口는 한의학용어로 이 부위만을 나타내는 해부학용어가 없으므로 그대로 기술하되, 전공자가 아니어도 위치를 이해하기 쉽도록 ‘손목의 노뼈쪽 동맥이 뛰는 곳’이라 괄호 안에 기술하여 ‘촌구(寸口, 손목의 노뼈쪽 동맥이 뛰는 곳)로 들어가’로 번역하였다.

‘上魚’에서 上은 ‘올라가다’의 뜻이며, 魚는 어부(魚部)를 의미한다. 기존번역서에서 ‘魚際部에 이르고’, ‘魚(手大指本節後 掌側肌肉隆起處)로 上하여’, ‘魚部(엄지손가락 本節 뒤에 손바닥쪽으로 肌肉이

물고기 배처럼 볼록 솟아 오른 부위)에 이르고’, ‘魚腹部로 상행하는데’, ‘어복혈(魚腹穴)로 올라가’라고 하였다. 『류경』과 『백화해』에서는 魚部는 첫째 손허리뼈의 손바닥 부위를 뜻하는 것으로 첫째 손허리뼈의 노쪽 가장가리를 이르는 魚際部와는 다른 이름이라고 설명하였으므로¹⁴⁾ 이를 참고하여 ‘어부(魚部)’라 하고, 위치를 이해하기 쉽도록 괄호 안에 해부학용어로 설명을 덧붙여 ‘어부(魚部, 첫째 손허리뼈의 손바닥 부위)로 올라가’로 번역하였다.

‘循魚際’는 기존번역서에서 ‘어제를 순행하여’, ‘어제혈을 순행하여’, ‘어제혈을 따라’로 번역했는데 술어인 循은 한자어인 ‘순행하다’보다는 ‘따라가다’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魚際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어제부위로 보아 어(魚) 부위의 가장자리, 즉 첫째 손허리뼈의 노쪽 가장가리를 이르고 손바닥과 손등의 경계면인 적백육제를 이른다. 둘째는 어제혈로 보는 것인데 어제혈은 어제부위에서 유래한 혈명으로 첫째 손허리뼈의 노쪽 중점을 의미한다. 『류경』과 『영추현해』에서 모두 어제혈로 보고있으나 여기서는 혈자리 이름보다는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보아 ‘어제(魚際, 첫째 손허리뼈의 노쪽 가장자리, 적백육제)를 따라가서’로 번역하였다.

‘出大指之端’에서 出은 ‘나오다’의 뜻이며, 大指는 엄지손가락, 端은 말단의 의미로 기존번역서에서 모두 ‘엄지손가락 끝으로 나온다’라 하였으며, 이를 따라 그대로 번역하였다.

‘從腕後’에서 從은 ‘따라가다’는 의미이고, ‘완골(腕骨) 뒤를 따라’ ‘손목 뒤를 따라’로 기존에 번역되었는데, ‘腕後’은 완골(腕骨)은 최신해부학용어로 ‘노뼈 붓돌기’로 수정하여 ‘노뼈 붓돌기 뒤쪽을 따라서’라 번역하였다. 從을 ‘~로부터’의 의미인 전치사로 번역할 수도 있으나 SVO구조의 관점에서 번역하기 위해 從을 동사로 보았다.

‘直出次指內廉’에서 次指內廉은 기존번역서에서 ‘검지 손가락 안쪽에서 끝으로 나온다’, ‘곧추 둘째손가락 안쪽을 따라 행하여 그 끝으로 나온다’ 하였는데 술어부인 直出은 ‘곧게 나온다’로 하는 게 자연스럽고 최신해부학용어에 따라 검지 손가락, 둘째 손가락은 ‘집게 손가락’으로 수정하였고, 내측은 해부학적 자세에서 집게손가락 가쪽(lateral)을 뜻하므로 ‘집게손가락 가쪽으로 곧게 나온다’라 하였으며, ‘出其端’은 ‘그 끝으로 나온다’라고 번역하였다.

이상으로 현재 번역되어 있는 단행본을 비교고찰하고 저자의 의견을 토대로 한글번역표준안을 고찰해보았다. 앞으로 한글번역표준안에 대해 관련 분야의 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수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 론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영추·경맥』의 수태음폐경 유주 원문 띄어쓰기와 한글표준안을 도출하였다.

1. 『영추·경맥』의 수태음폐경 원문의 띄어쓰기 제시안

肺手太陰之脈 起於中焦, 下絡大腸, 還循胃口, 上膈, 屬肺, 從肺系, 橫出腋下, 下循膺內, 行少陰心主之前, 下肘中, 循臂內上骨下廉, 入寸口, 上魚, 循魚際, 出大指之端, 其支者 從腕後, 直出次指內廉, 出其端

2. 『영추·경맥』의 수태음폐경 유주의 표준한글번역 제시안

수태음폐경은 중초(中焦)에서 시작하여, 대장으로 내려가 닿고, 되돌아와 위구(胃口, 들문)를 따라가, 가로막으로 올라가, 폐(肺)에 귀속하며, 다시 폐계(肺系, 기관)를 따라가서, 거드랑 아래로 옆으로 나와, 위팔 앞쪽을 따라 내려가 수소음심경과 수궐음심포경의 가쪽을 지나, 팔꿈치 가운데 쪽으로 내려와, 아래팔 앞쪽 노뼈 안쪽 모서리를 따라, 촌구(寸口, 손목의 노뼈쪽 동맥이 뛰는 곳)로 들어가, 어부(魚部, 첫째 손허리뼈의 손바닥 부위)로 올라가, 어제(魚際, 첫째 손허리뼈의 노쪽 가장자리, 적백육제)를 따라가서, 엄지손가락 끝으로 나온다. 그 가지는 노뼈 붓돌기 뒤쪽을 따라서, 집게손가락 가쪽으로 곧게 나와, 그 끝으로 나온다.

이 연구결과가 경락경혈학회지에 발표되는데 그치지 않고 경락경혈학 전문가들의 더 많은 연구를 통해 경맥의 한글표준안이 공표되기를 바란다.

감사의 글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d-Career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EST](No.: NRF-2014R1A2A1A11052795).

References

1. Park JH. The comparison of meridian theory between Hwangje-naegyeong and Mawangdui Silk Manuscripts. The Journal of East-West Medicine. 2002 ; 27(3) : 12.
2. Hwang DC. A study on the Kyoung Mac of the Young Chu(Doctorate thesis).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2002 ; 10-7.
3. Yang SS. Great Simplicity of Huangdi's Internal Classic. 1st ed. Seoul: DaeSung Publishing company. 1986 ; 71.
4. Zhang JB. Classified Classic. 1st ed. Seoul : DaeSung Publishing company. 1982 ; 150-1.
5. Huang YY. Huang Yuan Yu's 11 kinds of medical books. 1st ed. Beijing :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Company. 1996 ; 469-70.
6. Chen BL, Zheng ZR. Ling shu jing bai hua jie. 3rd ed.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Company. 1963 ; 106-7.
7. Meridians & Acupoints Compilation Committee of Korean Oriental Medical Colleges. Principles of Meridians & Acupoints : A Guidebook for College Students. 6nd ed. Daejeon : JongRyeoNaMu Publishing company. 2012 ; 91.
8. Hong WS. Miraculous Pivot of Huangdi's Internal Classic. 1st ed. Seoul :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publishing company. 1994 ; 118-9.
9. Bae BC. Miraculous Pivot of Huangdi's Internal Classic. 1st ed. Seoul : SeongBoSa Publishing company. 1995 ; 129-30.
10. Lee KW. Miraculous Pivot of Huangdi's Internal Classic. 1st ed. Seoul: YeoKang publishing company. 2000 ; 388-9.
11. Kim DH. Miraculous Pivot of Huangdi's Internal Classic. 1st ed. Seoul : EuiSeongDang Publishing company. 2002 ; 293.
12. Kim KW, Mun JG. Miraculous Pivot of Huangdi's Internal Classic. 1st ed. Seoul: Bubin publishing company. 2014 ; 87.
13. Cho EJ. Researches on sentence elements order of ancient chinese. Journal of chinese literature. 2015 ; 59 : 169-90.
14. Zhang JB. Classified Classic. 1st ed. Seoul: DaeSung Publishing company. 1982 ; 151, Chen BL, Zheng ZR. Ling shu jing bai hua jie. 3rd ed. Beijing :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Company. 1963 ; 107.